



제목	박찬희 교수가 쉽게 쓴 동방 정교회 이야기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신앙과지성사
발행일	2012. 6. 10.
저자	박찬희
출판도시	서울
페이지수	351
ISBN 또는 ISSN	978-8985602884

내용 요약

이 책은 개신교 신학자의 관점에서 정교회의 역사와 신학, 예배와 신앙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정교회의 주요 인물들의 삶과 사상을 소개함으로써 정교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접근하고 있다. 서방교회 배경을 가진 개신교 신학자로서 저자는, 1054년 기독교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분열되어 오랫동안 서로 잊고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서방교회 중심의 기독교가 주로 알려졌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자는 동방교회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임을 강조한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정교회의 역사와 신학을 다룬다. 정교회의 분포 상황과 공의회 그리고 한국 정교회를 통해 정교회가 걸어온 길을 고찰하고, 정교회의 중요한 주제인 테오시스, 이콘, 미의 신학, 성화논쟁을 통해 정교회 신학을 소개한다. 2부는 정교회의 예배와 신앙을 다룬다. 정교회 예배의 형식, 구조, 특징과 정교회의 책들과 율리우스력을 소개하고, 다양한 수도원 운동을 고찰하며, 정교회의 성당들과 이슈 사건들을 다룬다. 3부 정교회의 주요 인물들에서는 정교회 신앙의 선구자들과 순교자들을 소개한다. 신앙의 선구자들과 순교자들은 비잔틴제국의 황제들에서부터 성녀들과 여성들 그리고 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특히 산타클로스의 기원인 미라의 주교 성 니콜라스의 일화가 수록되어 있다. 저자는 초기 기독교가 자유를 얻기까지 순교한 순교자들을 정교회만의 순교자가 아니라 기독교 전체의 순교자로 소개한다.